

# 2015 국외연수 보고서

(2015년도 5월)



금 천 구 의 회

이 보고서를  
해외비교시찰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6.

의 장 정 병 재

부 의 장 강 태 섭

의 원 류 명 기

의 원 박 만 선

의 원 백 승 권

의 원 김 영 섭

의 원 김 경 완

의 원 김 용 진

의 원 박 찬 길

의 원 이 경 옥

# 목 차

I. 연수개요	-----	4
II. 연수일정	-----	5
III. 연수참가자	-----	6
IV. 연수내용		
1. 연수도시	-----	7
2. 주요시설 방문 현황	-----	19
3. 문화탐방	-----	44
4. 연수총평	-----	47
5. 연수후기	-----	50

## I 연수개요

- 기 간 : 2015. 5. 15(금) ~ 5. 21(목) (6박 7일간)
- 방 문 국 : 중국 / 상해(보산구), 북경 등
- 방문인원 : 14명(의원 10명, 수행직원 4명)
  - 의 원(10명) : 정병재, 강태섭, 류명기, 박만선, 백승권,  
김영섭, 김경완, 김용진, 박찬길, 이경옥
  - 수행직원(4명) : 이덕재, 이금주, 강호길, 오세완
- 방문목적
  - 중국 상해시 보산구는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서 최근 괄목 할 만한 성장을 이룬 도시로, 변화·발전된 모습을 우리구의 형편과 비교·관찰함으로써 우리 구정 및 의정발전에 반영하고,
  -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운동의 본산지 등 문화 유적지를 비교·시찰하여 자긍심 고취 및 의정활동 등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방문지
  - 상해 : 보산구 및 의회, 보산제철, 포대만습지공원,  
하구과학기술관, 상해국제크루즈터미널, 상해임시정부 등
  - 북경 : 북경에너지절약환경보호센터, 자금성, 천안문광장 등
  - 하얼빈, 심양 : 안중근의사 기념관, 731부대 등

II

연수일정

월일 (요일)	지 역	방문지	업무수행 내용	비 고
5/15(금)	· 인천  · 상해	· 인천 국제공항  · 부산개발구 공식방문  · 부산제철	· KE 897편 11:30출발 (비행시간 : 2시간 00분)  · 부산개발구 의회 및 구청 견학 및 방문  · 중국최대 철강회사 운영 및 환경관련 방문	
5/16(토)	· 상해	· 포대만습지공원 · 하구과학기술관 · 상해국제크루즈부두 · 상해임시정부	· 부산개발구 환경 및 과학 기술관련 시설 방문  · 문화· 관광자원 자료수집  · 역사유적지 방문	
5/17(일)	· 상해  · 북경	· 상해 홍차우공항  · 북경 국제공항	· MU5153편 09:30 출발 (비행시간 2:30)  · 자금성, 천안문광장 방문	
5/18(월)	· 북경	·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센터 · 자금성, 천안문광장	· 북경시 환경관련시설 견학 및 방문  · 현존 세계 최대의 궁궐 및 세계 최대 광장 견학	
5/19(화)	· 북경  · 하얼빈	· 북경공항  · 안중근의사 기념관 · 731부대	· CZ6204편 08:45 출발 (비행시간 2:10)  · 역사· 문화유적지 관람  · 역사 유적지 관람	
5/20(수)	· 하얼빈  · 심양	· 중앙역  · 북릉	· DI 308 고속철도 탑승 (09:40~12:30 / 3시간)  · 청나라 문화유적지 관람	
5/21(목)	· 심양  · 인 천	· 서탑거리, 심양고궁 · 심양국제공항  · 19:40 도착	· 세계문화유산 관람  · KE 834편 16:35 출발 (비행시간 2:10)  · 귀국 후 해산	

III

연수참가자

연번	직 위	성 명	비 고
1	의 장	정 병 재	시찰 단장
2	부 의 장	강 태 섭	부단장
3	의회운영위원장	류 명 기	단원
4	행정재경위원장	박 만 선	"
5	복지건설위원장	백 승 권	"
6	의 원	김 영 섭	"
7	"	김 경 완	"
8	"	김 용 진	"
9	"	박 찬 길	"
10	"	이 경 옥	"
11	사무국장	이 덕 재	수행총괄
12	행정 7급	이 금 주	수행직원
13	기술 8급	강 호 길	"
14	관리 8급	오 세 완	"



총 2,860개, 향(鄉), 진(鎭) 총 4만 4,822개

- 국내총생산(GDP) : 약 5조 8,783억 달러(2010년 기준)
- 화폐단위 : 위안(CNY, 元)

## □ 중국 개관

○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PRC, People's Republic of China, 中華人民共和國)이다. 아시아 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위도 상으로는 북위 23° ~ 53° 32'이며, 경도 상으로는 동경 73° ~ 135° 이다. 중국의 면적은 약 960만km<sup>2</sup>로 한반도의 44배, 세계 4위에 해당된다.

○ 중국의 언어는 한어(漢語)이다. 중국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이기에 언어도 여러종류의 언어가 사용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이 사용하는 언어인 한어는 해외의 화교(華僑) 사이에서도 쓰이고, 한민족의 문화에 동화된 국내의 이민족(異民族)들도 모어(母語)로 삼고 있어서, 세계인구의 1/5이 사용하고 있는 대언어이기도 하다.

## 상 해

### □ 일반현황

- 면적 : 6,340km<sup>2</sup> (서울의 10.5배)
- 인구 : 24,150,000명 (2013년 기준)
- GDP : 1인당 8,500달러 (2007년기준) ※ 중국평균의 3.5배
- 상해는 150여년의 길지 않은 역사이지만 항구도시로, 금융가가 있고 고층건물이 많으며 산이 없는 도시로 홍콩과 비슷한 면

이 많다.

## □ 역 사

○ 상하이는 경제적인 위상을 빼놓고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내세울 만한 것이 거의 없다. 불과 800여 년이라는 짧은 역사의 상하이. 그러나 그 짧은 역사 동안 상하이는 태평양 앞바다를 건너온 각종 문화를 받아들이고 혼합하는 거대한 용광로로 변했다.

○ 상하이는 백여 년간 발전을 보여주는 현대 중국의 축소판이다. 침략의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상하이는 어느 도시보다도 이성적이고, 법규를 중시하고, 과학적이고, 공업이 발달되었으며, 효율성이 높다. 이와 동시에 전통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효율이 낮고, 폐쇄된 중국의 문화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질적인 두개의 문화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응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 상하이이다. 바로 이곳이 현대 중국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상하이는 외세에 의해 강제 개항되면서 경제와 문화의 발전도 피동적으로 이뤄졌다. 치욕스런 역사 속에서 새롭게 탄생된 중국의 현대화된 도시 상하이에겐 번영과 고통, 영광과 굴욕의 역사가 교차하고 있다. 상하이의 영광을 나타내는 씨실이 있다면, 그것과 촘촘히 연결된 굴욕이라는 낱실이 있다. 이렇게 극과 극이 만나 새로운 빛깔을 만들어낸 도시, 상하이는 그렇게 천 가지 빛깔과 천 가지 얼굴을 가지고 세계와 만나고 있다.

##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상하이 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연이 매우 깊은 곳이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활동했으며, 윤봉길 의사가 독립을 외치며 거사한 곳이기도 하다. 지금도 많은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 시장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 요충지이다. 이렇게 상하이와 호흡하는 한국인이 이어져 왔으며, 지금도 그 삶의 울림이 전해지는 곳이다.

○ 상하이 동쪽과 서쪽에는 우리 민족혼이 살아 숨 쉬는 두 개의 성지가 있다. 하나는 ‘독립운동의 성지’인 임시정부 청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 현장인 루션 공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푸둥에 있는 김대건 신부가 사제 서품을 받은 진자상 성당이다. 조국을 위해 그리고 신앙을 위해 척박한 타지에서 목숨을 바쳐 살아갔던 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 북 경 (베 이 징)

### □ 일반현황

- 수도 : 북경(베이징, 北京)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 위치 : 허베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음
- 면적 : 16,808 km<sup>2</sup> (서울면적의 10배)
- 인구 : 약 2,115만 명
- 특징 : 자금성, 후통, 천안문, 만리장성 등의 유적(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 □ 행정구역

○ 베이징은 14개의 구(區), 2개의 현(縣)을 관할한다. 그 중 베이징 이환로(北京 二環路)내의 동청(東城), 서청(西城)이 2개의 구역은 전통적으로 내성구이다. 계획 중인 베이징 시 구역의 범위는 베이징 오환로 내외이다. 근래에는 진행이 빠르게 발전하여 도시화가 진행된다. 또한 몇몇 근교의 현이 구로 바뀌고 있다. 때문에 베이징시는 정치, 문화 중심의 도시, 공업 중심의 도시로 점차 변하고 있다.

## □ 역 사

○ 기원전 1000년경 춘추전국시대의 나라 중 하나인 연(燕)의 수도인 계(薊)가 오늘날 베이징(北京)이 있는 곳에 건립되었다. 연의 멸망 이후 계속해서 진(秦), 한(漢), 진(晉)왕조가 이곳에 지방 현을 설립했다.

○ 당(唐)대에는 현재 허베이(河北)의 북쪽 지역에 실직적인 군 통치자인 범양(范陽) 절도사 본부를 설치하였다. 755년 이 곳에서 안사의 난(安史之亂)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통 이 지역을 당 왕조가 중앙정부로써의 전 지역 통제력을 상실하기 시작한 전환점으로 여긴다.

○ 936년 후진(後晉)은 현재 베이징을 포함한 북부의 넓은 영토를 거란의 요(遼)에게 대부분 빼앗겼다. 938년에 요(遼)는 지금의 북경에 두 번째 수도를 건립했고 그것을 남쪽의 수도라는 뜻인 남경(南京)으로 불렀다. 1125년 여진의 금(金)왕조는 요를 합병하고 1153년 동북의 회령에서 이곳으로 천도하여 중앙수도라는 뜻의

중도(中都)라고 개칭했다.

○ 1215년에 몽골이 중도를 불태우고 1267년에 북쪽에서 상도(上都)를 건설했다. 중국의 전 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로 원(元)왕조의 시조 쿠빌라이 칸은 베이징보다 북쪽에 칸발리크 (汗八里, Khanbaliq) (위대한 칸의 거주지라는 뜻) 혹은 대도(大都)를 건설하여 수도를 삼았고 이 위치는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 속에 'Cambuluc'로써 잘 나타나 있다.

○ 1368년 원의 멸망 후 도시는 명(明)조에 의해 다시 재건되었고 순천(順天)지사 관저가 도시의 주위 지역에서 설립되었다. 1403년 영락제는 이 곳이 수도인 난징(南京)보다 북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베이징(北京)으로 개명한 뒤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북경은 또한 경사(京師)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단순히 수도라는 뜻이다. 명나라 시기 동안 전통적인 베이징의 구획이 확립되었다. 자금성과 천단(天壇) 등의 건축물이 1406년에서 1420년대 사이에 건설되었다. (현재의 천안문:天安門)은 1651년에 마지막으로 재건된 것이다.) 1644년, 만주족의 청나라가 베이징을 점령한 뒤에도 베이징은 청의 통치 기간 동안 중국의 수도로 남게 되었다.

○ 1916년 원세개가 죽자 중국은 지방 군벌들의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며, 각자 베이징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였다. 1928년, 국민당(中國國民黨) 정부는 북부의 군벌을 소탕하고, 난징을 공식적인 중화민국의 수도로 정한 뒤, 베이징을 북부의 평화 또는 북부의 평화를 회복시켰다는 뜻의 베이핑(北平)으로 개칭하여 베이징의 상징적인 의미를 떨어뜨렸다.

○ 제2차 중일전쟁(中日戰爭) 당시인 1937년 7월 29일, 베이핑이 일본에게 정복된 기간 동안 도시는 그 이전의 이름인 베이징으로 개명되었고, 이 곳에 일본에게 점령된 화북의 일부 한인들이 설립한 괴뢰정부인 중화민국임시정부(中華民國臨時政府)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항복과 함께 베이징의 이름은 다시 베이핑으로 바뀌었다.

○ 1949년 1월 31일 마오쩌둥의 공산당 세력은 베이핑으로 무혈 입성 하였고, 같은 해 10월 1일, 베이징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설립을 발표하였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베이핑은 공산 정권의 수도로 확정되었고, 이름도 다시 베이징으로 개명되었다.

○ 인민공화국 설립 당시에 베이징 시당국은 단지 도시지역과 바로 인접한 교외로 이루어져 있었고, 도시지역은 얼환루(二環路) 안에서 많은 작은 구역으로 나뉘었다. 그 뒤 주변의 일부 현이 이곳으로 편입되면서 베이징의 경계는 오늘날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베이징 성곽은 1965년~1969년에 얼환루(二環路)의 건설을 위해 허물어졌다.

○ 등소평의 경제개혁 후에 베이징과 난징과 뤼양과 청두와 시안과 충칭 등의 대도시지역은 매우 넓어졌다. 특히 베이징의 경우 이전에 얼환루(二環路)와 삼환루(三環路)에 한정되어 있던 베이징의 도시지역은 이전에는 경작지였던 많은 지역들이 개발되어 거주나 상업적인 곳으로 발전하면서 최근 건설된 우환루(五環路)와 리우환루(六環路)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

○ 새로운 상업 지역이 국무(國貿)지역에서 발전하면서 왕푸징(王府井大街)과 시단(西單)은 번성한 쇼핑지역으로 발전했고 쑹관춘(中關村)은 중국의 중요한 전자중심가가 되었다.

○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 2005년 초, 중국 정부는 베이징의 무질서한 발전을 멈추는 계획을 승인했다. 베이징은 중국의 국가적 자존심을 높여줄 행사로 2008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였다.

## 하얼빈

### □ 일반현황

- 하얼빈(할빈)은 부성급시이자 중국 헤이룽장 성의 성도
- 송화 강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공업 도시
- 중국에서 10번째로 큰 도시로, 동베이 지방의 정치, 경제, 과학, 문화, 통신의 중심지
- 인구 : 약 971만 명
- 면적 : 5만 3,796km<sup>2</sup>이다.
- 기온 : 1월 평균기온 -19.7℃, 7월 평균기온 22.7℃
- 연강우량 : 554mm
- 1996년 :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

### □ 역 사

○ 하얼빈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석기 시대 말인 기원전 2200년경부터이다. 본격적으로 도시가 건설된 것은 1898년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장하는 동청철도를 건설하면서였다.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고 그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16

개 나라의 영사관이 개설되고, 수백 개의 공장과 기업, 은행이 세워지면서 만주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 1918년 러시아 내전에서 패한 러시아 백군이 이 도시로 피난 오면서 러시아 바깥에서 가장 큰 러시아인 사회가 형성되었다. 동시에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 공동체도 만들어졌다. 러시아식 학교와 러시아어 신문도 발행되었다.

○ 1935년 동창철도가 일본에게 팔린 후, 그리고 1946년 이후 러시아인은 대부분 소비에트 연방으로 되돌아갔다. 다른 유럽인들도 오스트레일리아나 브라질, 미국으로 다시 이민 가거나 자신들의 모국으로 되돌아 갔다. 1988년까지 하얼빈에 남아 있던 러시아인은 나이든 30여 명뿐이었다.

○ 만주국이 세워지면서 일본군은 1932년 2월 4일부터 하얼빈에 진주하였지만, 1945년 8월 20일에는 소련군이 하얼빈을 점령했다. 하얼빈은 중국인민해방군에게 1946년 4월에 통치권이 넘어갔다.

## □ 경 제

○ 다롄은 지역의 선적 중심지로, 선양은 금융 중심지로 여겨지는 동안, 하얼빈은 지역의 무역과 쇼핑 중심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해 있고 천연 자원의 풍부함, 편리한 교통 시스템, 인력 자원의 풍부함 등 수많은 이점들을 자랑한다.

○ 2013년 하얼빈의 GDP는 5010억 8천만 위안(817억 달러)으로

예년보다 8.9% 증가하였다. 3차 산업의 생산량은 GDP에서 가장 큰 부분을 유지하였고 2674억 3천만 위안(205억 달러)으로 예년보다 9.0% 증가하였다. 수출과 수입의 총량은 2012년 말 5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얼빈 경제무역박람회는 17년 동안 해마다 개최되었고 누적 출품자 및 방문자 수가 130만 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여전히 적은 편이지만 정부의 노력의 결과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중국에서 가장 영양이 풍부하며 식량과 직물 관련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이다. 즉 하얼빈은 중국 곡물 생산의 기반이며, 농업 원료의 공급에 이상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포괄적인 산업 시스템을 통해 섬유, 제약, 식료품, 자동차, 야금, 전자, 건축 재료와 화학과 같은 경공업을 돕고 있다. 또한 ‘전력 발전의 수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 설치된 수력과 지열 발전 설비는 중국 전체에 설치된 총 용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 선 양 (심 양)

### □ 일반현황

- 행정단위 : 부성급시
- 청사소재지 : 선허 구
- 면적 : 12,924km<sup>2</sup>
- 인구 : 776만 (인구밀도 : 3.3만/km<sup>2</sup>)
- 중국 동북3성에서 제일 큰 도시로 경제, 문화, 교통, 군사의 중심지

## □ 역 사

○ 선양은 7200년에 이르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구석기에 취락했던 신타유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세기 초반, 사르후 전투에서 승리한 만주족의 누르하치는 선양을 점령하고 1625년 후금의 수도로 정했다. 그 후 청나라로 이름을 고친 후금은 1644년 명나라를 멸망시킨 후 중국을 점령하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변경하지만, 선양은 제2의 수도 대접을 받아 1657년에는 봉천부라고 명명되었고, 형식적이거나 중앙정부에 준거한 관제를 행사할 수 있었다. 지금도 시내에는 그 때의 황궁·선양고궁이 남아 있다.

○ 19세기 후반, 선양까지 한민족의 이동을 인정하지 않았던 만주(현재의 중국 동북부)가 러시아 제국의 남하정책으로 인해 지역을 개방하자 선양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선양은 지역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동북삼성을 묶는 관청도 설치되었다. 도시로서 선양이 크게 팽창했던 것도 이 시기이다. 1905년 러일전쟁 중에는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의 야전을 치렀다. 일본군은 3월 10일 평텐에 입성하였고, 12월 3일에 서울에서 평텐까지 협궤선이 개통되었다. 1912년 청조 멸망 후에는 장쥘린이나 장쉐량 등의 선양군벌의 거점이 되었고, 1923년 선양 시 정부가 설치되고 시정이 시행되어 1929년 장쉐량에 의해서 선양 시라고 개칭되었다.

## □ 경 제

○ 선양은 중국의 중요한 산업 중추이다. 특히 우주항공산업, 공작 기계, 중장비, 방위 산업과 같은 중공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자동차, 전자 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제1차

5개년 계획(1951~1956년) 기간에는 많은 공장들이 테시 구에 세워졌다. 선양의 중공업이 최절정에 달하던 1970년대에는 텐진, 상하이와 함께 중국의 3대 공업 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중공업이 쇠퇴함에 따라 선양은 러스트 지대의 도시가 되었다. 도시의 경제는 최근에 상당히 재건되었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산업 개발과 공업 자동화를 추진하는 중국 정부의 “진흥 동북로공업기지” 운동 덕분이다.

○ 많은 주요 공업 회사들이 선양에 본사를 두고 있다. 중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인 화신 기차의 생산 공장 대부분이 선양에 위치해있다. 선양비기공사는 시민들과 인민군을 위한 비행기를 생산한다. Neusoft는 선양에 있는 중국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중국에서 가장 큰 공작기계 제조사인 선양 공작기계가 선양에 위치해있다.

##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선양은 위나라, 수나라, 당나라 때에는 고구려에 속해 있었다. 선양은 창춘, 하얼빈과 더불어 고구려와 발해의 중심도시였다. 정묘호란 후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 봉림대군, 인평대군은 청나라에 인질로 보내어졌는데, 내성 대남문안에 조선관이라는 관소에 머물렀다. 조선관은 현재 선양시립아동도서관에 있었다. 청나라에 잡혀왔던 삼학사 중 홍익한, 오달제, 윤집은 대서변문 밖에서 참수당했는데 현재 중산 공원부근이다. 조선인들은 19세기 말부터 서탑 지구에 몰려 살았는데 그 수는 1만여 명에 이르렀다.

## 보산개발구

## □ 일반현황

- 국 명 : 중화인민공화국(PRC, People' s Republic of China, 中華人民共和國)
- 도 시 명 : 상해시 보산구
- 위 치 : 상해시 북동쪽에 위치
- 면 적 : 425km<sup>2</sup>(우리구의 32.5배)
- 인 구 : 1,220,000명
- 행정구역 : 18개리 65반
- 행정조직 : 6개 街道, 13개 鎮, 3개 鄉
- 지역특성
  - 중국 최대 철강 제조회사인 보산제철 소재
  - (주)진도, 현대정공(주) 등의 기업 진출
  - 전체 인구 중 사회노동자가 44.97%, 농촌노동자가 23.47%
  - 공업생산은 조정기구, 신제품개발, 판로확대, 수익향상 등 주요 환경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발전

## □ 지리적 특징

- 상하이 북쪽, 양쯔강[揚子江]과 황푸강[黃浦江]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자딩구[嘉定區], 남쪽으로 푸톈구[普陀區], 자베이구[閘北區], 홍커우구[(虹口區], 양푸구[楊浦區]와 접하며 북동쪽은 양쯔강과, 동쪽으로는 황푸강과 닿아 있다. 북서쪽 모퉁

이는 장쑤성[江苏省]의 타이창[太倉]과 접한다. 양쯔강에 실려온 진흙과 모래 등이 쌓여 이루어진 충적평야 지대로 토양이 비옥하다.

## □ 역사적 특징

○ 청나라 옹정제(雍正帝) 때인 1724년 당시 자딩현[嘉定县]에서 분리되어 바오산현[宝山县]이 되었다. 1958년 상하이시에 편입되었으며, 1988년 바오산현에서 바오산구로 바뀌었다.

20세기 초에 보산은 이 지역의 행정 중심이었다. 그러나 보산은 산지에 있었던 반면 장톈은 평평한 계곡에 있었다. 장톈에 철도가 부설되면서 상업 및 행정 중심은 장톈이 대신하게 되었다.

○ 산둥은 20세기 초에 독일의 보호령으로 보산은 독일의 영향을 받은 흔적을 볼 수 있다. 독일 회사인 지멘스의 가장 큰 공장 중 하나가 이곳에 위치해있다. 그러나 이 공장은 2005년에 미국 회사에 팔렸다. 철도역은 바바리안식 건물처럼 보인다. 마을에는 여전히 독일식의 맥주를 양조하는 몇 개의 작은 식당들이 있다.

○ 보산 정부의 경제 개혁 실시로 인해 한 때 국가 정책의 혜택을 받던 많은 전통적인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최근 보산 정부는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보산제철 공식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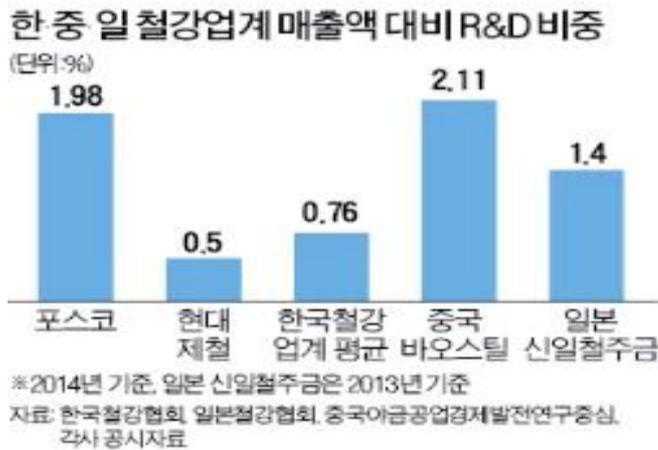
### □ 연수개요

- 연수일시 : 2015. 5. 15(금) 17시 ~ 18시
- 장 소 : 보산제철 내 회의실
- 참 석 자 : 보산제철 해외사업부 부장 및 직원, 의원 10명
- 보산제철 특징
  - 중국 최대의 철강기업 : 조강생산량 세계 3위 / (포스코 세계5위) <2015년 기준>
  - 주요 설비시설은 열처리, 냉각처리에 대한 설비가 주를 이룸
  - 신형기술 개발은 환경보호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 주요 수돗물처리에 대한 홍보 및 공공호수와 폐수의 홍보
  - 보강공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선 수돗물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

### □ 연수내용

- 보산제철의 제조과정 시찰 및 질의 응답시간을
  - 브리핑 및 질의 응답시간으로 변경
  - 비행기 연착, 비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방문시간 연기됨
- 보산제철은 냉연자동차판, 가정용판, 도금판등 중국내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최대의 철강기업이다. 자동차용 강판, 석유관, 조선용 후판, 스테인리스, 고급건축재, 공구강 등의 6가지 품목의 철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품질 모두 중국내 1위라고 한다. 중국은 점차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고 제품구조와 에너지·환경, 자원확보 등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보산제철은 중국철강공업의 신기술, 최신 생산공정, 신제품의 주요 연구개발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 성장하는 보산제철의 R&D 비중



○ 중국 철강산업 정책 수립 싱크탱크인 야금공업경제발전연구중심에 따르면 중국 철강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은 2009년 1.2%에서 2011년 1.57%, 2012년 1.54%로 12.5규획기간의 목표치인 1.5%를 이미 넘어섰으며 한국 철강산업이 아직도 1%를 하회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중국 정부는 철강업체들과 중국내 철강생산량 증가에 따른 철광석 수요 확대, 고품질의 철광석 확보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광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내년 중국이 해외광산에서 생산하는 철광석량이 연간 1억t 규모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철강산업의 2013년 매출액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7.8%인데 반해 R&D 투자 비중은 0.75%에 불과해 수치상으로 중국 R&D투자비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 주요 설비시설은 열처리와 냉각처리에 대한 설비가 주를 이루며, 신형기술 개발은 환경보호 분야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 주요 수돗물처리에 대한 홍보 및 공공호수와 폐수의 홍보
- 보강공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선 수돗물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

○ 보산제철 공정과정 자료



보통 오폐수 재활용 공정



뿔뿔 수처리 공정

○ 의장님인사 : 보산제철의 보강공정 관련 프리젠테이션을 성의 있게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우리일정은 제조과정을 보고 포항제철 등을 비교해보고 싶었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겨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그리고 보산구 간부님들의 동행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해 주신 P.T 자료와 품질향상, 친환경을 위한 기술향상을 위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폐수처리과정, 공업용수 및 생활하수 등 많은 걸 배워갑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련과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몇 년 후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보산구와 보산제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산제철 해외사업부 부장 : 기회가 되면 빠른 시일내에 방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산구와의 자매결연의 두터운 관계처럼 보강제철과도 두터운 관계를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보산구 인민정부와 인민대표회 공식방문

### ☐ 연수내용

- 연수일시 : 2015. 5. 15(금) 15시~16:30, 18:30~20:30
- 장 소 : 보산개발구 회의실 및 예상해식당 만찬
- 목 적 : 긴밀한 관계형성과 우호협력관계 증진
- 참 석 자 : 보산구 주요인사 명단

연 번	직 책	성 명	성 별	약 력
1	당서기	왕 흥	여	1961년4월생 / 보산구 인민대표당서기
2	구 장	방세충	남	1968년8월생 / 철학박사, 부교수, 당조직 서기
3	부구장 (부서기)	하 우	남	1957년7월생 / 한족, 강소 견호출신, 보산구 당위 상임위원
4	부구장 (부서기)	주덕훈	여	1957년2월생 / 강소 계동출신, 구 행정학 원장
5	부구장	도하방	여	1964년2월생 / 한족, 상해 출신
6	부구장	조영근	남	1965년 3월생 / 한족, 강소 태주출신, 시 공안국 보산 분국 당위서기
7	부구장	연정화	남	1965년4월생 / 한족, 상해 출신
8	부구장	진문과	남	1966년10월생 / 한족, 강소 무석 출신
9	부구장	심위민	남	1969년2월생 / 상해시 변강지원사업 전방 부총지휘
10	부구장	원 강	남	1976년8월생 / 한족, 산둥 봉래 출신

○ 보산구 공식방문 활동사진



## ▣ 포대만 습지 공원

### □ 연수개요

- 연수일시 : 2015. 5. 16(토) 09시 ~ 10시
- 위 치 : 양행진 포대만 습지 삼림공원
- 특 징

- 우리나라 난지도를 공원화 한 하늘공원처럼 중국 철강단지의 고철쓰레기더미 1.5M위를 공원화한 것

### □ 연수내용

- 세계에서 3번째로 긴 중국을 횡단하는 장강(양쯔강, 양자강, 창강)과 상해를 가로지르는 황포강(황푸강)이 만나는 곳으로 상해로 들어오는 주요 해상통로로 강의 크기가 커서 바다같이 보일 정도로 웅장함을 볼 수 있었고 습지와 녹지공간을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였음
  - 부산구 산업발전 중에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례로 자연 친화적 도시재생프로젝트로 성공한 사례임.
  - 아편전쟁(1842년)과 일본과의 1.28 후송항전(1932년), 8.13후소항전(1937년), 상해 해방우송전쟁(1949년)을 치루면서 포대가 있으며, 포대+만(bay)으로 포대만 습지공원이라고 명칭하게 되었음.
  - 나무들의 하단에 석회수를 칠하여 해충을 방지하여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고 있는 점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우수사례였음.
  - 우리나라 포항제철에서 만들어진 고철쓰레기도 이곳 포대만습지공원에 던내고 버린 것을 보며 우리나라에서 나온 환경쓰레기를 던지고 수출하는 점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 이 곳 포대만습지공원을 벤치마킹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진정한 환경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하구과학 기술관

### 연수개요

- 연수일시 : 2015. 5. 16(토) 10시 ~ 11시
- 위 치 : 양행진 하구과학기술관

### 연수내용

- 면 적 : 6.8만 $m^2$  (건축면적 : 9.8만 $m^2$ , 전시면적 : 6.55만 $m^2$ )
- 설 립 : 2001년 12월
- 설립금액 : 17.55억 위엔
- 운 영 : 09:00~17:30, 월요일 휴무 (황금 휴무기간 제외)
- 연간수용 가능인원 : 300만명
- 누적관광객 : 1500만명 초과 (2007년12월기준)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곳

○ 상하이 과학기술관은 “자연 · 인간 · 과학” 을 주제로 하며, 전체 시민의 과학문화소질을 추진하고 도시의 종합경쟁력을 높이려는데 있다. 그 기능은 교육과학연구, 레저유람, 합작교류 및 수장제작 등이 있다. 또한 관광객으로 하여금 즐거운 놀이를 하면서 과학기술지식과 과학정신을 전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상시전시관 현황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
생물만상	지구의 집	탐색의 빛
지각탐험	로봇세계	인체와 건강
지혜의 빛	정보시대	우주비행시계
설계사 요람	거미 전시관	
무지개 어린이 놀이동산		
동물세계		



○ 과학기술관은 서쪽이 낮고 동쪽이 높은 나선형 비대칭 건물로 가장 눈에 띄는 구조는 중앙에 자리한 계란 노른자위 모양의 구체(지름 18m)다. 외면이 계란껍질 같아 우주의 무한하고 생명의 풍부함을 상징한다. 6.8만㎡의 전시구역에는 11개의 전시관과 특별전시관을 갖추고 있다. 생물만상, 지각탐색, 디자이너의 요람, 지혜의 빛 등 전시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과학 탐구 호기심을 유발하는 전시물이 주를 이룬다. 레이저가 나오는 곳을 손으로 가리면 빛에 감응하는 센서가 전기신호를 보내 음을 만드는 레이저 피아노와 석유 시추 모형 등이 전시돼 있고, 우주 공간에서 무중력 현상도 체험할 수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내용도 많지만 어른들도 이곳에서 새로운 과학지식과 체험을 할 수 있다.



## □ 특수 영화관

○ 과학기술관은 4개의 특수 영화관 즉 대형스크린영화관, 구형스크린영화관, 네방위(4D)영화관 및 태공영화관 등이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과학기술영화관으로서 매년 10,000차례의 상영을 할 수 있다.



## □ 임시전시회

○ 부정기적으로 특별한 임시전시회를 기획한다. 우리가 방문 했을 때 진행하고 있는 전시는 “동물세계” 전시였다. 이 전시는 오대주의 110종, 186건의 정밀한 진귀한 야생동물표본을 전시하고 있었으며 그 총 가치는 1500만 달러를 초과하며 전시면적은 약 2000평에 달한다.

## ▣ 상해 국제크루즈터미널

### □ 연수개요

- 연수일시 : 2015. 5. 16(토) 11시 ~ 12시
- 위     치 : 상해 북외탄 지역 황푸강
- 일반현황 : 3년간의 공사를 거쳐 2011년 10월 개항한 상해 국제여객선 부두임

### □ 연수내용

○ 상해국제크루즈터미널은 상해 북외탄 지역 황푸강에 위치하고

있다. 황푸강은 장쑤성 타이호 동안의 호소 지대에서 발원하여 동으로 흘러 상하이로 들어가 우쑹에서 창강과 합류하는 강으로 물은 황토색이며 전장 113km, 폭 300~700m, 평균수심 9m이다. 양쯔강과 중국의 남북 해안선의中间的 하구에 위치한 상하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이며 중국의 가장 큰 항구다. 바다, 강, 담수가 만나는 국가운송 시스템을 연결하는 중국에서 유일한 단 한 개의 항구이다.

○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크루즈관광산업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구도시(인천, 부산, 제주 등)에서는 상해국제크루즈터미널을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금천구는 인천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금천구의 해외여행객 유치하는 데 이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청사

### 연수개요

- 연수일시 : 2015. 5. 16(토) 17시
- 위 치 : 상해 신천지 카페거리 맞은편
-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 일본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하였다.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공화정 정부가 되었다.
- 1920년대 후반, 일본의 방해로 국내에서의 지원도 끊기고 독립운동가들의 생각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서 임시 정부는 중심을 잃었으나 김구 선생이 다시 임시 정부를 강화시키고 해외에서 자금을 모으며 각종 군사 활동과 의거 활동을 지원해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 일본군이 중국에 쳐들어오자 임시 정부도 일본군을 피해 상해를 탈출하게 되었으며 남경과 장사를 거쳐 1940년에는 중국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충칭으로 본거지를 옮기게 되었다. 본국과의 연결은 쉽지 않았지만 중국 국민당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 군사력을 키워 광복군 총사령부를 만들고, 제2차 세계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41년 12월 연합군에 가담해 일본에 선전 포고를 했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많은 준비를 했지만 변변한 군사 작전 한 번 치르지 못하고 1945년 일본의 항복을 맞

게 되었다.

○ 상하이 임시정부청사는 1926년부터 1932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청사로 사용했던 건물로, 현재 상하이에 남아있는 유일한 임시정부청사이며 연립주택 형태의 3층 벽돌조 기와 건물로 이루어진 임시정부 청사는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복원한 이후 한·중 우호증진의 상징시설물로 자리를 지켜왔다.

○ 상해 임시정부청사는 방문하기 전 생각했던 모습과는 달리 주변의 모습에 비해 초라한 골목에 위치하고 있었다. 골목 건너편엔 높은 빌딩과 백화점, 카페가 즐비한 신천지거리가 있어 그 모습이 더욱 대비되어 보였다. 우리의회가 방문한 이틀 뒤인 5.18일부터는 광복 70년을 맞아 새단장을 위한 보수공사로 청사 휴관을 실시한다고 하며, 다행스럽게도 방문할 수 있어 우리구의회로서는 더없이 의미가 있는 일정이었다.

○ 이번 보수공사로 기존 전시관을 최신 전시기법으로 전면 교체하고, 1층 회의실과 영상실 환경정비 등 새단장을 한 임시정부 청사를 고대해 본다.

## ■ 베이징 에너지절약 친환경센터

### □ 연수개요

- 연수일시 : 2015. 5. 18(월) 09시 ~ 11시
- 위 치 : 베이징시 조양구 쇼우관동리 갑2호
- 참 석 자 : 왕 부장, 센터장

○ 주요일정 : 센터 소개 및 질의응답 시간, 센터 시찰

## □ 연수내용

○ 베이징 에너지 절약 친환경센터는 중국정부와 프랑스정부,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가 지역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82년 베이징에서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독립법인 자격을 구비하고 전액 조달 행정 국급 비영리 사업단체로서 베이징 발전 및 개혁위원회에서 귀속 관리하며, 베이징시의 유일한 에너지 친환경 종합사업에 종사하고 정부와 직능을 담당하는 전문 기구이다.

○ 베이징 에너지 절약 친환경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 정부를 협조하여 전시의 에너지 친환경 전략 및 기획, 법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베이징 에너지 발전보고 작성
- 친환경 상황 조사
- 에너지관리를 실시하고 정부와 협조하여 계약 에너지관리, 공공기구의 에너지절약, 에너지사용 온라인 컨트롤 등 사업 진행
- 정부의 위탁을 받고 지방의 에너지 절약 기준을 작성하고 에너지사용의 합리성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구(區), 현(縣)의 에너지 모니터 기구의 사업을 지도하고 업무조직 및 기능 교육 실시
- 정부의 위탁을 받고 에너지절약 목표와 에너지절감에 대한 심사와 검사를 진행하고 주요 에너지 사용 기업들에 대한 에너지 이용 상황보고 작성 작업 지도
- 정부의 위탁에 따라 에너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자원의 통합이용, 새로운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의 이용 등 영역의 시범공

## 정과 과제 연구 사업 조직 및 실시

- 새로운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의 이용과 청결한 생산 작업을 추진하고 본 시의 순환 경제 발전 촉진

- 에너지절약 친환경제품 및 기술에 대한 평가심사와 보급활동을 전개하여 본 시의 에너지절약 친환경사업을 발전시킴

- 에너지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에너지정책의 홍보교육, 조직보급 및 전시 등 활동 실시

-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영역의 국제, 국내교류와 협력을 전개함

### ○ 베이징 에너지 절약 친환경센터의 주요 성과는

- 에너지기획 및 정책을 연구하고 에너지관리 및 서비스를 전개하며 에너지절약 공정 및 여러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실시함

## □ 질의응답 주요 내용 및 사례연구

- 북경 에너지절약환경보호센터는 1982년에 설립되었으며 북경 시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절약으로 환경 보호에 목적을 둠

- 북경시의 전기를 화학발전에서 천연발전(태양, 풍력 등)으로 100% 전기생산으로 목표로 두고 있으며 주택, 공공주택 그리고 상가건물 등에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절약을 위해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며 서비스를 하고 있음.

- 중국과 북경시 정부가 환경관련 전시회를 열면 한국의 기업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중임. 환경보호시스템으로 바람, 공기를 이용한 에너지절약 시스템을 개발 · 시연중에 있다고 하니 이것이 대중화된다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임.

- 정부가 80%이상 지원하는 도시는 상해와 북경 뿐이지만 향후 5년이내 전국적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머잖아 중국 전역이 환경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북경 에너지절약환경보호센터는 2008년에 설립되어 미국에서 환경보호인증을 받은 북경시 유일한 에너지절약 건물로 태양열 이용, 난방을 하지 않는 보온시스템 설치, 창문의 경우 유리사이에 샷시를 한층 추가하여 보온 효과를 높인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간단한 기술이지만 그 효과는 아주 큰, 가장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우수사례임.

○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중인 기술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기술도 많았으나 기술개발 및 정부지원의 문이 넓은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급속한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빛을 모았다가 저녁에 이용하는 시스템도 개발 이용하고 있음  
- 열을 모았다가 이용하는 것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임

○ 북경시는 친환경 에너지정책에 관한 10가지 조약을 체결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개별 정책의 시행은 지방자치시대인 우리나라, 우리구에서도 시행해 봄 직함

○ 환경관련 한-중간 협약을 체결해서 동반자로서 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좁은 땅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아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많아 최근 분리수거 등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중국은 땅이 넓지만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면 거리에 놓여있는 쓰레기통이 우리나라처럼 1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쓰레기통과 일반쓰레기통이 나뉘어 세워져 있는 점등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였다.

○ 의장인사 : 대한민국 금천구의회에서 왔습니다. 에너지절약 친환경센터의 방문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너지절약센터의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아 좋은 점은 벤치마킹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하겠습니다. 왕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북경 에너지절약 친환경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 : 도시 곳곳에 설치 되어 있는 쓰레기통 (재활용 전용 통과 일반쓰레기 통으로 구분)

## ■ 안중근의사 기념관

### □ 연수개요

- 연수일시 : 2015. 5. 19(화) 13시
- 위     치 : 하얼빈 기차역
  - 안중근의사가 초대 조선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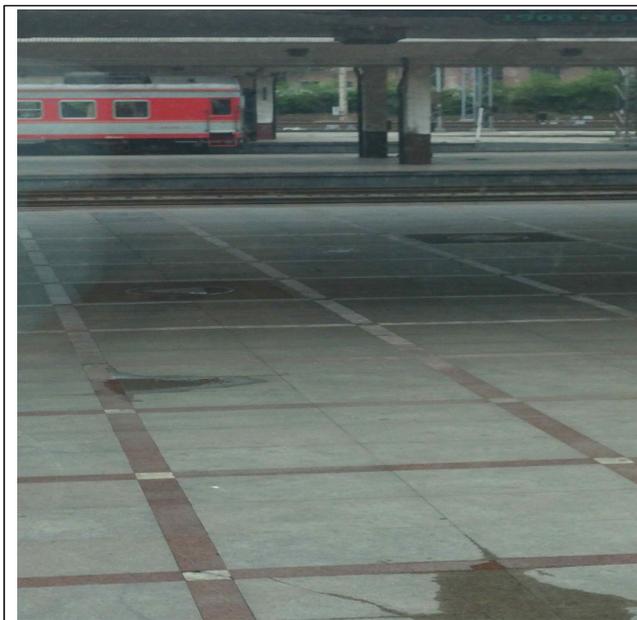
### □ 연수개요

- 소 재 지 :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다오리구 안성가 85호
- 규     모 : 약 200평
- 개 관 일 : 2014년 1월 19일
- 관람시간 : 09시~11시30분, 13시30분~16시 (월요일 휴관)
- 주요자료 : 안중근 의사 사진, 유필, 의거 관련 사료 등
- 하얼빈시와 철도국이 공동 투자하여 건립

### □ 내    용

- 독립열사인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를 기려 건립한 것으로 200평 남짓한 공간에 손도장, 동상, 유필 등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 11일간 머물며 역사적 의거를 기획하고 달성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의거를 재현한 모형까지 있다. 또한 기념관 내부에서 통유리창 너머로 '안중근, 이등박문 격살 사건 발생지[安重根擊斃

伊藤博文事件發生地]’라는 문구가 새겨진 의거 현장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20분짜리 짙막한 영상도 상영되며 기념관이 있는 건물은 조선민족예술관으로 원래 중국 내 조선족 사회의 역사와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었다고 한다.



## 731 부대

### 연수개요

- 연수일시 : 2015. 5. 19(화) 14시
- 위 치 :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남쪽
- 731부대 유적(731部队遗迹)은 일본군의 끔찍한 만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적은 예산으로 대량 살상이 가능한 세균전의 이점에 눈을 뜬 일본은, 1930년대 이곳 하얼빈에 세균전 실험기지를 건설했다. 중일전쟁 중에 지어져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적을 불문하고 약 3,000명에 이르는 포로가 이곳에서 희생되었다. 일본군은 죄수에게 역병과 매독, 전염균을 주사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 731부대는 1936년 만주 침공시 하얼빈 남쪽 20km 지점에 설립한 세균전 비밀연구소로 출발하였으며. 당시 방역급수부대로 위장하였다가 1941년 만주 731부대로 명칭을 바꾸었다. 설립 당시의 사령관은 1930년대 초 유럽 시찰을 통해 세균전의 효용을 깨닫고 이에 대비한 전략을 적극 주창한 사람은 세균학 박사 이시이 시로 중장 이였으며 부대 예하에는 바이러스·곤충·동상·페스트·콜레라 등 생물학 무기를 연구하는 17개 연구반이 있었고, 각각의 연구반마다 마루타라고 불리는 인간을 생체실험용으로 사용했다.

○ 1940년 이후 해마다 600명의 마루타들이 생체실험에 동원되어 최소한 3,000여 명의 한국인·중국인·러시아인·몽골인 등이 희

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만행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살아남은 150여 명의 마루타들까지 모두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양된 세균을 도자기 만든 폭탄병에 넣어 항공기에서 투하할때 사용한 세균폭탄



○ 1945년 소련 군대가 하얼빈에 진주했을 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일본군은 남아 있던 400명의 포로를 처형한 뒤 이곳을 불태워버리고 달아났다. 그러나 1980년대 초 731부대 장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일본의 한 대학에서 발견되면서 영원히 비밀로 남겨질 수도 있었던 일본군의 만행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일본군의 소행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1982년 전시관으로 개관했다.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도록 수술도구, 해부도구 등 실제로 사용되었던 도구가 전시되어 있으며, 생체실험을 모형이나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만행의 끔찍함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 1947년 미 육군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1936년부터 1943년까지 부대에서 만든 인체 표본만 해도 페스트 246개, 콜레라 135개, 유행성출혈열 101개 등 수백 개에 이른다. 생체실험의 내용은 세균실험 및 생체해부실험 등과 동상 연구를 위한 생체냉동실험, 생체원심분리실험 및 진공실험, 신경실험, 생체 총기관통 실험, 가스실험 등이었다. 최근 731부대 장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일본의 한 대학에서 발견되어 일본군의 세균전 및 생체실험이 사실로 입증되었다고 한다. 731부대 장교와 부대원들은 세균전 연구결과를 모두 미군에 넘기는 조건으로 전범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면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아직도 복원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 VI 문화 탐 방



○ 황포강 시찰 : 창강 하류의 지류로 우쑹에서 창강과 합류하는 강  
 - 물은 황토색이며 전장 113km, 폭 300~700m, 평균수심 9m이다  
 - 강남의 수로로서 중시되어 명(明) 이후 이따금 대규모의 준설작업을 하였으며, 청 말엽 상하이(上海) 개항으로 우쑹에서 상하이 간 대형 기선의 항행이 가능해져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동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하이 10대 명소중의 하나



○상하이의 유럽신천지  
 - 1920년대 유행하던 쓰꾸먼 양식으로 조성  
 - 북부광장과 남부광장으로 구성  
 - 북부광장 : 3만㎡로 재건축 건물들이 집중된 곳. 현재 상하이에서 가장 세련된 쇼핑 장소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음식점과 술집, 바(bar), 커피숍, 카페, 상점, 갤러리 등이 들어서 있고, 예술가들의 아트숍도 자리하고 있다. 석고문은 아직 상하이의 옛 모습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각각의 내부는 현대적이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고전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자금성[쯔진청](자주색의 금지된 성 의미)
- 면적 : 72만㎡ / 건축면적: 15만㎡
- 길이 960m, 폭 750m
- 직사각형의 공간에 수많은 건물과 조형물이 있음. (방의 개수는 9999개)
-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가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면서 건립 (1406년)
-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14년에 걸쳐 건설

- 천안문광장 : 마오쩌둥의 대형 초상화가 걸린 천안문과 광장은 금수교(金水橋)라 불리는 다섯개의 흰대리석 다리로 연결됨.
- 베이징 중앙부에 위치한 동서500m, 남북 880m, 총면적 44만㎡의 세계 최대 광장.
- 광장북쪽에 서있는 높이33.4m의 천안문은 원래 1417년에 명 영락제에 의해 건설되었던 승천문이 그 전신으로 1651년에 재건해 천안문이라고 부르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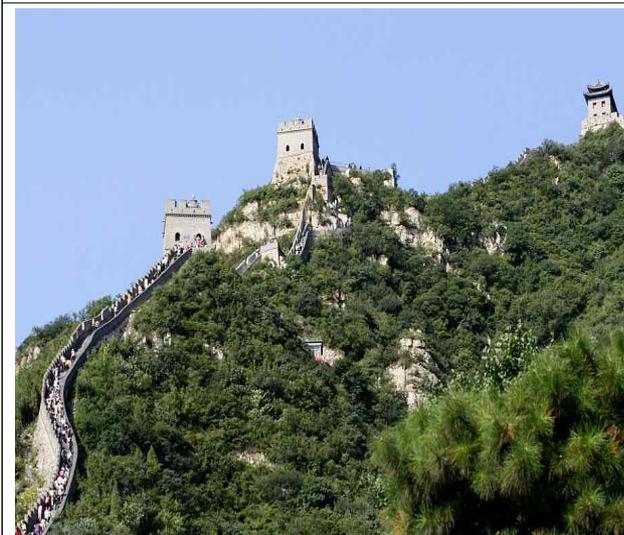
○ 북릉공원 : 심양시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면적 330만ha의 공원

- 청나라 승덕(崇德) 8년(1643년)에 짓기 시작하여 순치(順治) 8년(1651년)에 완성
- 원래 청나라 제2대 황제인 황태극(皇太極)과 황후의 무덤이었던 것을 1927년 성 정부에서 공원으로 만들면서 시의 북쪽에 있는 능이라는 뜻에서 북릉이라 하였으며 1982년에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 북경 이외의 지역에 조성된 청나라 관외삼릉(關外三陵)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숲과 인공호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수의 면적은 30ha에 이름.



○ 심양고궁

청나라 초대 황제인 누르하치[奴兒哈赤]와 2대 황제 태종(太宗)이 선양에 건립한 궁으로 1625년에 착공하여 1636년 완공되었다. 면적은 약 6만㎡이며, 72만㎡인 자금성(紫禁城)에 비하면 12배 이상이나 규모가 작다. 2004년 베이징 고궁박물관에 포함되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 만리장성 : 총 연장 : 2,700km (중간 지선까지 합치면 약 5,000~6000km)

- 동쪽 산하이관에서 서쪽 자위관 까지 동서로 길게 뻗어 있음
- 기원 : 진나라 시황제때 건립되었으나 춘추시대(BC 770~ BC 443)부터 부분적 건축됨
- 성벽 높이 6~9m, 평균 폭은 위쪽 4.5m, 아래쪽 9m  
(※100여 m 간격으로 망루를 설치)
- 총 공사기간 : 약2000년으로 추정
- 공사에 투입된 인원 : 약 30만 명으로 추정

올해 중국 방문은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상해시 보산구의 초청을 시작으로 두 도시 의회와의 상호교류 증진 및 우호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변화·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우리구의 형편을 비교·관찰함으로써 우리 구정 및 의정발전에 반영하고자,

또한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운동의 본산지 등 문화유적지를 비교 시찰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신중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보산개발구를 의회차원에서는 처음 방문하는 기회로, 상호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한층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두 도시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교류 확대의 필요성과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보산개발구의 보산제철과 포대만습지공원 등을 방문하여 최근 10여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도시의 변화 발전된 모습과 함께 급팽창하고 있는 환경관련 문제점과 환경 정책 등을 비교·관찰하면서 우리구의 실정에 접목시킬 수 방안 등을 배우고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방문한 독립운동의 역사 유적지인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 안중근의사 기념관, 731부대의 방문은 이런 낯선 땅에서 조국을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활동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숙연한 마음을 갖게 하였으며 지금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이 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의 의정

활동이, 독립운동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구민을 위하는 길이  
며 나아가 우리나라를 위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당선시  
의 초심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  
가 되었다.

또한 이번 비교시찰에서는 방문기관을 정하고 관련기관에 대한  
사전공부를 통해 궁금한 점들을 미리 준비해서 현지 기관 방문시  
질의하고 답변 받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예전의 비교시찰과는  
다른 발전된 모습이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보고, 듣고, 느낀 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우  
리구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고자 한다.

끝으로 알찬 연수가 될 수 있게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심사위  
원님들, 이번 연수를 위해 준비 팀원으로 활동 해 주신 분들, 그리  
고 바쁜 와중에도 우리를 초청해서 즐겁게 환대하여 주시고 상세  
히 안내해 주신 상해시 보산구 관계자분들, 항상 많은 관심과 격  
려를 해주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  
서를 마칩니다.

# 연 수 후 기

## 2015 금천구의회 공무 국외연수 후기

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

의원들의 해외 비교시찰에 대하여 구민들 입장에서는 외유성 여행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해외 비교시찰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던 중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보산구에서 우리의회로 초청장이 왔다. 올해가 광복7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의원 총회를 거쳐 해외 시찰지를 중국 쪽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7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시행하는 비교시찰에 전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여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일정을 수차례 수정하는 등 여러 가지 고충을 거쳐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상해시의 보산구를 방문하는 날, 그들의 진심어린 호의와 앞으로 두 도시의 성장 발전을 위한 다짐들을 통해 두 기관의 우의를 더욱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보산구의 대표적인 보산제철을 방문하여 그 규모에 놀랐고 포대만습지공원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 정책을 보며 중국도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며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다.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방문했을 땐 일반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는 점과 눈여겨 보지 않으면 상해 임시정부가 있는 곳이라고 알 수 없을 것 같았고, 하얼빈의 731부대를 방문했을 때는 일제의 우리민족 탄압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보수공사를 시작하는 상해임시정부와 731부대에서는 아무쪼록 좀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 나왔다.

중국 방문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 만나 본 중국인들은 한층 밝고 씩씩한 모습이었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았으며, 중국 동포들에게도 한국은 위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구에서 가까이 많이 만나 볼 수 있는 그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살다 왔구나 하는 생각에 한결 친근한 마음과 함께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을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우리 의회의 방문이 여러면에서 뜻있는 시찰이 되었으며, 오래전에 방문했던 기억이 전환되는 계기와 그들의 발전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도 다시금 느끼는 경험이었다. 이번 시찰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구민에게 알리고 구정과 의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 연 수 후 기

## 2015 금천구의회 공무 국외연수 후기

금천구의회 부의장 강태섭

중국을 한번쯤 다녀오신 분들이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실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번 시찰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나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가봤던 중국은 저저분하고 거리나 계단에 침 뱉는 사람들도 많아서 '역시 중국은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다. 하지만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 본 중국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구나 하고 피부로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다.

상해와 북경의 거리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많았지만 담배꽂초나 쓰레기는 볼 수 없었고 도로에 나와 있는 쓰레기통 근처조차 말끔한 모습에 놀랐다. 빌딩이 서있는 모습과 공사 중인 건물들의 규모는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정도였고 느껴지는 분위기조차 가히 위압적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올림픽을 치러내고 달라진 모습이라고 한다.

한가지 더 놀라운 점은 거리에 나와 있던 사람들 인상과 분위기가 밝았다는 것이다. 보산구 방문시 맞이해주는 직원들의 인상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도 처음엔 가식적으로 만들어낸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했었지만 며칠간의 시찰 기간 동안 보고 들으며 느낀 인상도 같았기에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금천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의 모습이 같이 교차되며 그들이 찾아온 고향땅 한국에서 행복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솟아 올랐다.

또한 광복70주년 기념으로 방문했던 곳 상해 임시정부, 안중근의사 박물관, 하얼빈의 731부대에서는 나라 잃은 국민의 애환과 슬픔을 다시 한번 느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 현재가 행복한 줄을 모르고 사는 이들이 이곳을 한번씩 다녀와서 애국심이 발현되기를 소망해 본다.

# 연 수 후 기

## 2015 금천구의회 공무 국외연수 후기

금천구의회 의원 류명기

기초의원이 되기 전부터 의원들의 해외시찰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소 부정적 시각이 강했었다. 그래서 기초의원예 당선되더라도 첫 해외시찰은 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5년 해외 비교시찰로 의총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당선 전 소신대로 가지 않는 것이 구민이 낸 세금도 절약하고 구민들의 지지에 부합하는 것일까? 아니면 비교시찰을 통해 무언가를 보고 듣고 배워 와서 구민들께 돌려주는 것이 맞을까? 해외 비교시찰은 정말 무언가를 배워올 수 있는 기회가 될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얽혀 있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자매결연지인 부산구의 초청장이 도착했고 또 올해가 광복70주년인 상황이 어우러져 금천구 제7대 의회의 첫 해외 비교시찰국을 중국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전 의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번 비교시찰에 참여하게 되었다.

비교시찰 첫날 상해시 부산구에 도착하였다. 중국을 흔히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부산구에 도착해서 이들을 보내면서 느낀 점은 대국답게 규모나 시설들이 크고,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느낌이었다.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점이 있었으며 배울 점도 많다는 것과 이들의 잠재력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두 번째 방문도시인 북경에서는 중국의 수도답게 건물과 교통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복잡하고 여느 대도시와 견주어도 뒤질 것 같지 않았다.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 뜻깊게 생각하는 또 한가지는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에 있는 우리 역사유적지를 방문한 것이었다. 상해 임시정부, 하얼빈의 안중근 기념관과 일제시대 만행을 여지없이 드러낸 731부대를 방문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활동한 우리 선조들의 기운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이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금천구 구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으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재무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해외 비교시찰을 바라보던 나의 시각을 180도 바꾸어 놓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출발 전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이는 일정으로 불만도 있었지만 실제 다녀보니 뜻깊은 일정으로 잘 짜여진 비교시찰이었으며 다소 힘들었지만 느끼고 배운 것들을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 연 수 후 기

## 2015 금천구의회 공무 국외연수 후기

금천구의회 의원 박만선

2015년 금천구의회 해외공무여행은 보산구의 초청, 광복70주년의 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중국으로 결정되었다. 7대 개원이후 첫 해외 시찰이라서 조선의원들에게도 뜻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정에 올랐다.

첫날 상해시 공항에 내렸을 때 비가 많이 내렸는데 중국에서 비는 좋은 일, 반가움의 의미라고 해서 우리 일행을 반겨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일정을 시작했다.

10여년 전 중국을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후진국의 느낌과 거리의 풍경도 무질서해서 '사회주의 국가여서 어쩔수 없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번시찰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시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가 방문했던 북경과 상해는 세계 여느 나라의 도시들과 견줄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다. 특히 상해시 보산구의회의 환영만찬에서는 단정하고 밝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타 선진국의 모습과도 견줄 만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보다 앞선다는 느낌을 갖게되어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시찰기관 주변의 모습과 이동 중에 보았던 거리에서도 시민들의 표정이 밝고 편안해 보여서 예전 방문시 느꼈던 중국 시민들의 지저분하고 무질서해 보였던 것에 비해 많은 변화가 느껴졌다. 이런 분위기가 올림픽을 계기로 변화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대회를 계기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점과 유사하다고 느꼈다.

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인 2015년을 기념하여 방문한 상해임시정부와 안중근 기념관, 731부대를 방문했을 때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좀 더 나라의 힘을 키워 더 이상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상해시 보산제철과 북경의 환경보존센터를 방문했다. 폐수처리 및 재활용하는 기술, 에너지 절약 기술 등을 보고 들으며 중국인들의 환경에 관한 관심과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들도 우리나라 아니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 못지 않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넓은 땅을 가진 중국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느끼기 위해 빠듯한 일정으로 추진되어 피곤한 점도 있었지만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멀게만 느껴졌던 중국의 변화를 느끼고 앞으로 두 나라의 긴밀한 우호 협력으로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었다.

# 연 수 후 기

## 2015 금천구의회 공무 국외연수 후기

금천구의회 의원 박찬길

우리 의회 일행은 상해시를 방문하여 여러곳을 둘러 보았다. 높은 빌딩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완성된 무한 경쟁 시대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눈에 도심의 발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대략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면적에 인구는 서울의 3배쯤의 데이터를 보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도시임에는 분명하다.

보산구(바오산-구) 제철 단지를 방문했을 때 우리의 난지도 매립지와 같은 제철 찌꺼기 매립장을 자연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여 친환경 공원으로 탈바꿈한 것을 볼 때 도시의 현 재상을 보여주는 미관적인 탈바꿈과 더불어 중국 정부도 환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 북경시 방문

북경시는 중국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와 대외 모든 분야의 중심을 차지하는 도시답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고속성장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하게 보였다. 이런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산업단지의 환경규제와 감시를 통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통해 환경오염 복구를 위해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현 시점에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다.

### 하얼빈 방문

하얼빈 시내의 모습은 활기차 있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의 혜택이었을까? 중국의 변방인 데도 불구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한가지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의 산실, 일본의 만행이 자행된 731부대 전시관을 돌아보고 가슴이 아프고 피가 끓어 올랐다.

상해에서부터 중국전역에 걸쳐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업적을 생각해 볼 때 오로지 조국을 찾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안중근의사를 비롯해 수많은 독립투사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과거에 중국은 도시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대기오염을 제외하고 봤을 때 깨끗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환경을 수치나 지표로 본다면 우리의 도시환경과 청소문화는 이미 중국에게 역전 당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의 시민의식 수준이 조금 높을 뿐이다. 서울시 정책 담당자들은 중국 정부의 도시미화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도시환경이

한층 더 깨끗해지길 바란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관련 조례 또는 감사를 통해 우리 금천구의 현 상황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번 중국 연수는 많은 배움과 이를 바탕으로 숙제를 가지고 온 연수였다고 생각하며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고속성장과 이에 따른 환경의 부작용을 관찰하고,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나라 없는 서러움이 피눈물 날 만큼 가슴 아픈 일인가를 생각하였다. 자신의 가족,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독립을 위하여 몸바친 독립투사들께 존경을 표하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다.

# 연 수 후 기

## 2015 금천구의회 공무 국외연수 후기

금천구의회 의원 김용진

7대 개원이후 첫 해외 시찰이라서 나를 포함한 다른 초선의원들에게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정에 올랐다.

첫날 상해시 공항에 내렸을 때 비가 많이 내렸는데 중국에서 비는 좋은 일, 반가움의 의미라고 하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10여년 전 중국을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후진국의 느낌과 거리의 풍경도 무질서해 보였던 기억이 선명하다. 하지만 이번에 보고 느낀 중국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변화들은 올림픽을 치러내며 바뀐 모습들이라고 한다.

우리를 맞이해 주던 보산구의 간부들과 직원들의 활기차고 자유로운 모습, 넓고 방대한 토지에 끝도 없이 높이 올라가고 있는 빌딩들, 아파트를 지어도, 건물하나를 지어도 그 규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북경 에너지 환경보호센터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정책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 등에서 우리나라를 앞서나가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

포대만 습지공원에서 보았던 여러 시설들과 운영방법들은 우리구 구정 및 의정활동에 접목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 유익한 방문이었다.

이번 시찰에서의 큰 성과는 우리의회가 보산구의 직접 초청으로 의회입장에서 단독 방문한 기회로 또한 우리의회와 보산구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우호 협력을 다지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과 상호 발전방안 등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관계 개선에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것을 성과로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발원지 등을 방문하고 생생한 기운을 느끼고 돌아온 이번 시찰은 우리 기초의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줄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

# 연 수 후 기

## 2015 금천구의회 공무 국외연수 후기

복지건설위원장 백승권, 의원 이경옥,  
의원 김경완, 의원 김영섭, 의원 박찬길

### ▣ 해외시찰지 선정이유

- 7대 금천구의회 첫 해외시찰 : 자매도시 방문 의미
- 우호협력 기대 : 긴밀한 관계 형성 및 우호협력으로 금천구의 경제 활성화 모색
- 중국문화 및 역사이해
- 정치적 사회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이해

### ▣ 급변하는 중국의 발전 그리고 금천구

- 급성장하는 중국을 벤치마킹하여 금천구에 접목할 방안 모색
- 경제·문화·행정 등 다방면의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방안 모색
- 세계속의 경제흐름을 파악하고 지역 경제인들과 협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 찬란한 정통문화 그리고 급성장하는 경제

- 아시아 문명의 발생지로 찬란한 정통문화가 발생되고 현존하는 거대한 나라
  - ㉠ 문화유산의 철저한 보존과 관리로 자긍심 부여
  - ㉡ 자연적인 생태도 보존이 필요한 문화유산
- 경제의 급성장 부작용
  -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해결 문제
  - ㉡ 양극화 심화
  - ㉢ 세대적인 문화차이와 후진·선진국적인 문화공존, 시민의식 등의 이중적인 모습
  - ㉣ 치솟는 물가와 집값으로 생활경제 불안정

▣ 사진으로 만나보는 중국



삼륜차 : 중국의 공공시설이나 공원이면 흔히 볼 수 있는 관리용으로 쓰이는 삼륜전기차이다.



북경의 공안 : 우리나라로 치자면 전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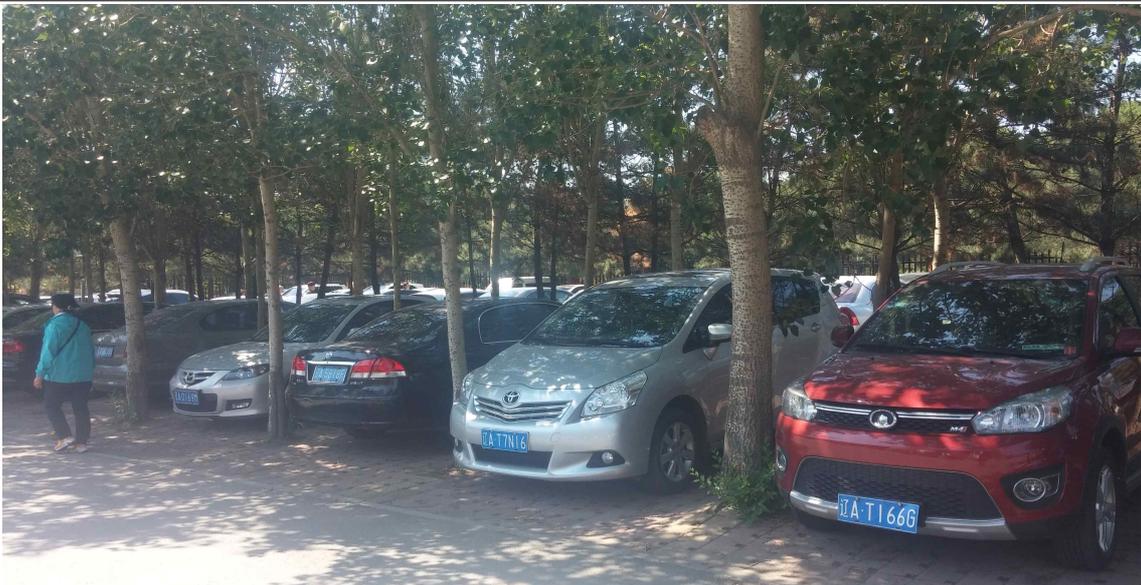
중양대가에서 만나 개 : 중국의 애완견 시장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의 자전거 보관소 : 시멘트 벽안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다.(약 300여대가 들어 갈 수 있는 공간)



중국의 농촌 풍경 : 끝도 없이 보이는 평지로 된 논이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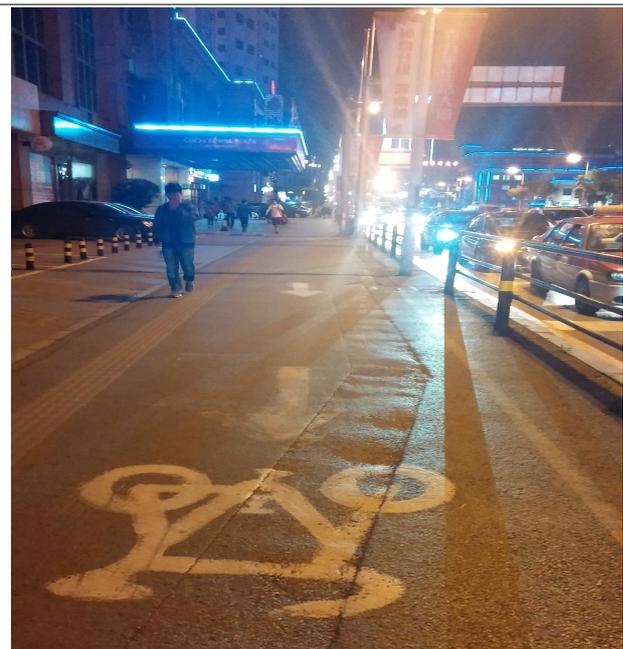
공원주차장 : 기존의 나무로 주차구획을 하였다.



화단 : 흙이 화단을 넘지 않도록 되어있어 물이 넘쳐 도로를 더럽힘을 방지하고 물의 저장을 용이하게 한다.



도로 청소 살수차 : 6차선 도로를 한번에 할 수 있다. 매일 새벽 주요 도로를 다니며 청소한다.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대를 설치하여 도로와 구분한 것이 인상적이다.



<중국 보도의 공사현장>  
보도를 반으로 구분하여 통행에 지장 없게 공사하면서 구간에 간이 벽을 설치하여 안전에 주의하는 공사가 인상 깊다.



중국에서 자전거가 가장 큰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편견을 버리자.  
주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며 전기 이륜차를 이용한다. 가끔씩 일반 자전거도 보인다.



화물 전기자전거 : 니어카와 자전거를 맞대게 설치한 듯한 모습이다. (중국에서는 흔히 본다)

#### ▣ 마치며

- 중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어느 지역을 가든 높게 올라가고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을 볼 수 있다. 또한 문화 후진국이라 여겨졌던 고정관념이 해외시찰을 다녀온 후 깨져버렸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를 뛰어넘고 있다는 걸 느꼈으며 이제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벤치마킹 할 때가 곧 머지 않는 거 같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만이 모른 체 그시기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많은 것을 보고 기록하려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담당 조원 모두 수고 하였으며 많은 것을 느끼며 이 보고서를 마친다.